

# 김지사 “영광을 e-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

### 도민과의 대화...부품 국산화·초소형 전기차산업 육성 원전 폐로 특별법 제정·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노력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영광을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는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영광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영광을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까지 3년간 28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 및 주행실증을 통해 40%인 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려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442억원을 들여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 초소형 자동차 관련 기업 유치 및 전후방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송이도항, 범성항, 대신항 등 5개소에 450억원을 들여 정박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어업을 지원하고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볼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 영광철산타워 주변 관광지 개발, 군남면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을 통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관용 한빛원전 법무국대책위 기획팀장은 원전 폐로지역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진기 영광군새마을회장은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한빛원전 1, 2호기가 2026년까지 폐로된다면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전 폐로에 대비해 특별법 제정과 국가산단 지정, 원전 소재 지자체 등과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폐로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구체화되면 특별법 제정



7일 오전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을 위해 영광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군산-영광-목포 간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구축망이 제5차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남·북 지자체들과 함께 공

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최종근 대마면 이장단장은

대마 안골계곡 유역관리사업 추진을, 백중수 백수읍 길용1리 이장은 백수 정관평 평야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건의했고, 김 지사는 적극 검토 입장을 피력했다.

영광군도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구도심 활성화,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성과 달성에 따른 군민 보육 육구 총족을 위한 청년 창업·육아 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5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인근 청소년문화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과 연계해 취·창업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김준성 영광군수, 최은영 영광군의회의장, 이장석 전남도의원, 강기현 영광경찰서장, 김춘근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영광군의원 등 15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현장에 참석했고 11개 읍·면을 대표해 150명의 군민이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김재정기자

## ‘교통업무 일원화’ 광주교통공사 설립 검토

### 김광란 의원 시정 질의에 이용섭 시장 의견 밝혀

광주시가 교통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교통공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사가 설립되면 여러 기관에서 다루는 교통 업무를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교통 관련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교통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도시민 서비스 향상, 인건비 절감 등 긍정

적 효과가 있어 설립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법적 지위가 다른 공사, 사단법인, 특수법인 간의 통합에 따른 법적 처리 문제, 조직간 분열과 갈등 문제, 회계처리와 세무 문제, 업무 집중에 따른 또 다른 비효율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넓은 의견수렴,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 다른 지자체의 선례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는 교통 관련 기관 총사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 설립 사례를 검토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에는 도시철도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교통문화연수원·교통정보센터· 시내버스운송조합 등 5개 교통 관련 기관이 있으며 1천77명이 종사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세종에는 교통공사가 있으며 경기와 대전은 설립이 예정돼 있다. /오승지기자

## 임미란 “청소년 수련시설 자치구 불균형”

### “구별 수용 편차 최고 두 배 이상”

청소년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 구별 수용 편차가 최고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구별 수용 인원 편차는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 기회 박탈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 등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3) 의원은 지난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소년 수련·이용 시설에 대한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현재 수련 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구 3개소 ▲남구 1개소 ▲북구 3개소 ▲광산구 2개소 등 9개소다. 오는

2022년 개관 예정인 동구·서구·광산구에 3개소가 추가 설치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모두 12개소가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구별 청소년은 ▲동구 1만5천401명(청소년 시설 수용 가능 인원 1만5천401명) ▲서구 5만7천357명(“ 1만4천340명) ▲남구 3만9천422명(“ 3만9천422명) ▲북구 7만8천225명(“ 북구 2만6천75명) ▲광산구 8만8천609명(“ 2만9천537명)으로 총 27만9천14명이다.

서구와 남구의 청소년 수용 편차는 두 배 이상 보이고 있다. 또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 시설을 갖춘 유스호스텔의 경우 전국에 108개소가 설치돼 있으나 광주시는 단 한 곳도 없다.

임 의원은 “광주시 총 예산과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청소년 정책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동 대비 설치율은 9.28%로 약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국 특·광역시 중 세 번째, 시설수 대비 청소년 수혜 측면에서는 개소당 3만1천명으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 제2순환도로 지산IC 내달 15일 개통

### 왼쪽 진출로만...운전자 혼란 방지 시설물 설치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무등산, 지산 유원지, 광주 법원 등으로 접근성을 높일 지산 나들목(IC)가 오는 11월15일 개통한다. 하지만 진출로가 통상적인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진입하여서 역주행 또는 접촉 사고 등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지산IC는 70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총연장 0.67km, 폭 6.5m로 개설했다.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법인인 광주순환도로

투자사가 맡았다.

지산IC는 우측차로를 이용해 진출하는 일반적인 도로와는 달리 1차로를 통해 왼쪽으로 진출하도록 설계됐다.

개설 직후 운전자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산IC 진출로는 당초 우측방향으로 계획했으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진출로 하부가 주거밀집지역으로 소음피해, 분진,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좌측방향 진출로로 변경됐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지리적 혹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국도 29호선 화순 램프마을,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광항IC 등이 좌측방향 진출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산IC는 진출로만 있을 뿐 제2순환도로 진입 차로는 없어 역주행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광주시는 경찰과 협의해 분선 구간 2km 지점부터 1차로의 제한속도를 90km에서 70km로 줄이고 지산IC 진입 마지막 1km 지점부터는 50km로 제한하기로 했다.

진출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차로 도로 바닥에 분홍색 안내차선을 약 2km씩 시공하고 지산IC 출구 전용 문자

를 100m 간격으로 표시, 산수터널과 지산터널에도 100m 간격으로 LED안전표지판 등을 각각 12개소 설치했다.

또한, 역주행하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어 도로 바닥에는 진입금지 문자와 금지 노면표시를 5개소 설치, 구조물벽면이나 난간에는 절대 진입금지 문구와 좌우회전 금지 안내표지판 10개소를 설치했다.

김재식 시 교통건설국장은 “현재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1차로 좌측방향 진출로 개통으로 운전자들이 생소할 수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서행과 함께 교통규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오승지기자

# 202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 d-Revolution

9.1.-10.31.

장소 | 광주비엔날레전시장, 광주디자인진흥원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재)광주디자인진흥원 | 협력주관 |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d-Revolution 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